

자동차·반도체 이을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동력



고흥 우주시대를 준비하자

1 우주산업에 미래 있다

#. 2019년 어느 날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KSLV-II)'가 제 2 발사대에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 46.5m, 무게 200t에 달하는 3단 로켓에 새겨진 '대·한·민·국' 네 글자가 선명했다.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0.9.8~2.1 발사. 땅이 흔들리는 엄청난 굉음을 뒤로 하고 한국형 발사체가 사뿐히 우주로 향해 날아올랐다.

6년 전인 2013년 1월 나로호(KSLV-1) 발사 뒤 꼬박 6년만이다.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순간이다.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우주 개발의 꿈에 부풀어 있다. 정부는 1조5500억원을 들여 오는 2019년까지 한국형 발사체(KSLV-II)를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나로호 성공 가치 2조원

향후 10년 위성시장 156조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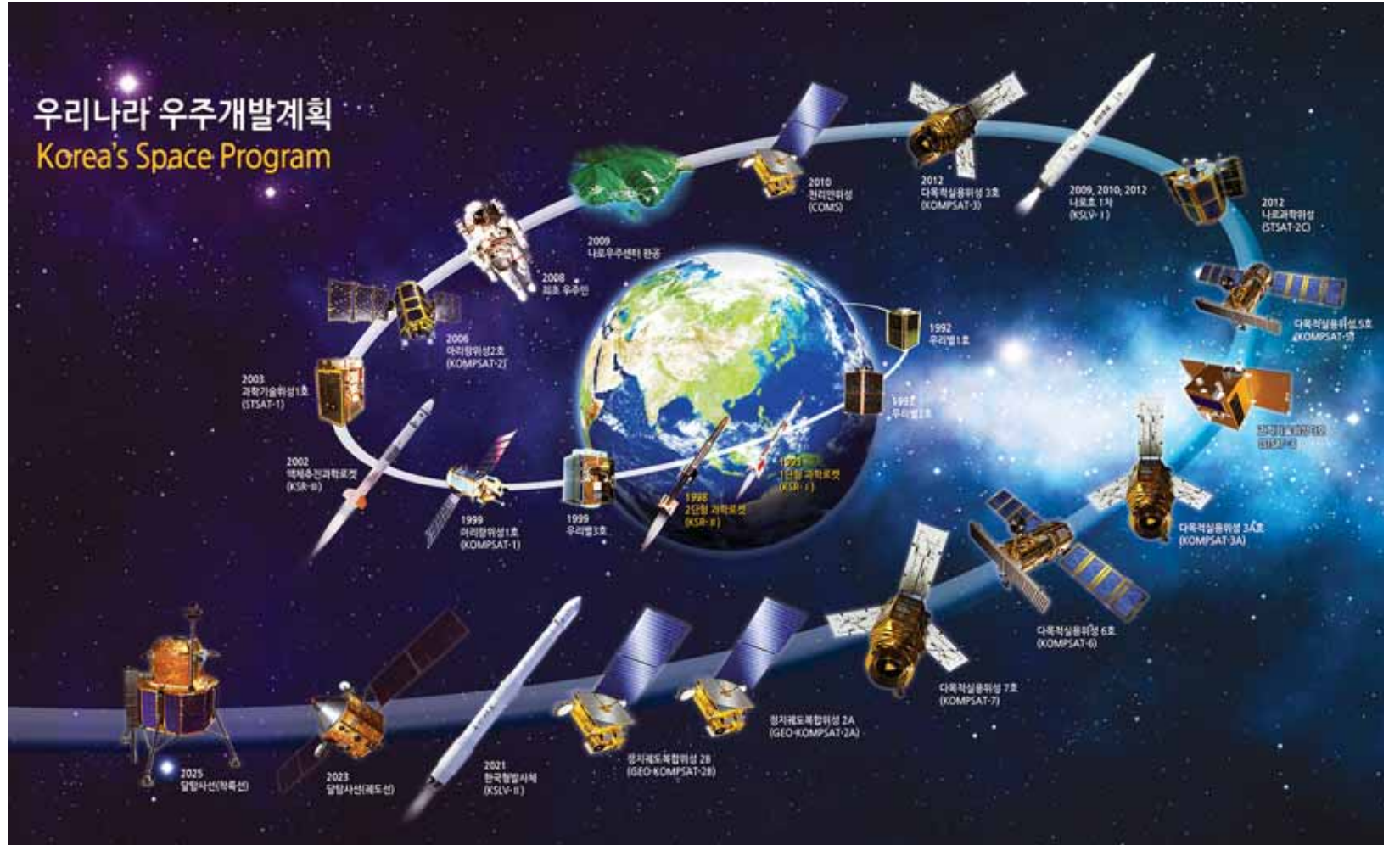
전남의 미래 이끌 원동력

나로우주센터도 한국형 발사체 발사대로의 활용과 부대 시험 등을 위해 2단계 확충공사를 진행하는 등 국내 우주산업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전 세계가 우주 개발에 매달리는 건 수 천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 기술 개발에 따른 부가 산업 발전 등 '우주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로켓의 크기 만큼이나 엄청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나로호의 경제적 효과도 1조 8000억~2조 4000억원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우주클럽 가입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나로호 성공은 국내 우주산업 시장을 2020년까지 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예측했다.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유로컨설팅도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적으로 발사된 인공위성 772



기가 생성한 위성 시장 규모를 910억 달러(약 98조 6895억원), 위성이 실린 발사체 시장의 경우 380억 달러(약 41조2110억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더 나아가 2010년부터 향후 10년간 위성시장은 1445억달러(약 156조7102억원)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국내외 우주 관계자들은 "자동차, 반도체 중심의 수출 주력 상품이 미래에는 위성·발사체 등 우주 관련 기술이 주력 상품이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관련 기술을 수출하거나 위성을 발사하는 데 수백~수천억 원이 오가는 것은 이루 말할 것 없고 발사와 개발 단계부터 형성되는 국가 브랜드 상승 효과까지 감안하면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세계 각국이 '돈 되는' 우주 산업에 뛰어드는 이유다.

정부는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국가의 '신 성장동력'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나섰다.

우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는 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모두 2조 1331억원이 위성체(1조638억원), 발사체 및 우주센터(9743억원), 기초연구(950억원) 개발 등에 투입된다.

올해 나로호 성공이 정부의 우주 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당장, 우주개발 분야의 경우 올해 6666억원에 비해 22.7%가 증가한 8178억원이 내

년도 사업에 배정됐다.

전남도 '우주'를 미래 산업으로 보고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단계에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다면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일보는 우주 시대를 앞두고 각 분야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국내 우주개발 연구의 핵심 시설인 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우주·항공 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 중인 고흥·경남 사천 등을 둘러보고 우주·항공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지난 1월30일 나로호 3차 발사가 성공 하자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나로호 발사를 지켜보던 관람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향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는 나로호가 발사된 제 1발사대 옆 제 2발사대에서 하늘로 날아오를 계획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건강하고 흥겨운 한가위

우리의 마음만큼 풍성한 보름달을 바라보며 온가족 함께 모여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 더욱 밝은 모습으로 뽀기를 기대합니다.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체인점 문의 TEL. 061.375.2383 HP. 010.6656.0002